나주시, 옛날식 주택 토방 낮춘다…어르신 안전한 일상 도모

집 마루-마당 잇는 토방 계단·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윤병태 시장, 산포면 이어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추진

나주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토방 낮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토방'(土房)은 집 마루와 마당 사이 마당보다 조금 높게 흙과 돌을 쌓아 만든 계단으로 흙집에 습기가 타고 올라오는 것을 막고자 옛날식 주택에서 주로 쓰인 전통 건축 양식이다.

시골마을에는 토방이 있는 옛날식 주택이 많아 관절염을 앓거나 다리에 힘이 없는 어르신은 높은 토방에 오르내리기가 불편할뿐더러 낙상 사고 위험이 있어왔다.

나주시는 높은 토방을 오르내리는 어르신, 장애인의 거동 불편 해소와 낙상 등 주택 안전 사고를 예방에 중점을 두고 토방 특성에 따라 계단 또는 완만한 경사로(발판),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산포면에서는 토방 낮춤 사업을 복지기동대 사업으로 연계, 올해 12가구 완료를 목표로 현재까지 9가구 토방에 계단·경사로를 설치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최근 현안업무 회의를 통해 산포면장으로부터 토방 낮춤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이 사업을 전체 읍·면·동으로 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맞춤형복지팀,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을 통해 토방 낮춤, 안전바 설치 등 낙상 예방 지원 사업 대상 가구 발굴 및 수요조사에 나서고 있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기초연금수급 어르신, 장애인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낙상 사고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가구(만 65세 미만) 등이다.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주택 여건에 맞춰 어르신이 토방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계단,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등을 추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마루가 높은 옛날식 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무엇보다 낙상사고 위험이 크다"라며 "이번 토방 낮춤 사업을 통해 맞춤 경사로 또는 안전발판, 손잡이 등을 설치함으로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담양군, 경로당에도 친환경 쌀로 밥 짓는다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협약 체결

담양군은 지난 14일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총회의장 양용호)과 관내 경로당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에 대한 공동 노력과 협약기간 내 공급단가 및 양질의 쌀 품질 유지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경로당 양곡은 관내 361개소 경로당에 연간 7포씩 정부관리양곡으로 지원됐으나 올해 11월부터는 친환경 쌀로 지원한다.

경로당 양곡을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담양 쌀로 공급함으로써 경로당에서 소비되는 연간 2,600여 포(20㎏/포)의 친환경 담양 쌀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에 우리 담양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쌀을 공급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로당 활성화와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 군민과 약속한 향촌복지의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21세기장성아카데미 "숲으로 돈 버는 산림 르네상스"

내일 남성현 산림청장, 선진국형 산림 부흥 방법 강연

오는 17일 열리는 21세기장성아카데미에 남성현 산림청장이 강연을 맡는다.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저성장, 고령화,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선진국형 산림 부흥 방법을 전한다.

남성현 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과학적 산림 관리로 산주와 임업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길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올해로 28년째 운영되고 있는 21세기장성아카데미는 세계 최장기간 열린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강연을 갖는다.

참여는 선착순 입장 또는 장성군 누리집 온라인 예약으로 가능하다.

장성=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오늘까지 곡성군 일하잡(JOB)센터로 신청…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곡성군이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과정(기본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활동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마을 주민들이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양성과정은 기본-심화-실무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첫 번째인 기본 과정이다. 사회적경제 활동가에 관심 있는 주민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취업을 모색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경제의 정의에서부터 사회적경제 활동가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이론과 소양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 주 2회(목, 금) 진행된다. 오는 16일까지 곡성군 일하잡(JOB)센터(☎061-362-8742)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곡성군 사회적경제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주민자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면서 우리 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구례산수유 웰니스 페스티벌 19일부터 2일간 개최

이태원 참사로 2주 연기 개최, 안전과 주민소득 연계가 최우선

구례군은 '구례산수유 웰니스 페스티벌'을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2주 연기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꽃축제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국 산수유의 77%를 차지하는 구례산수유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첫째 날에는 황교익, 박상현 등 유명 음식 평론가들이 참여한 푸드 토크쇼인 "알쓸신밥"과 김희재, 박군, 장하온 등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공연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강레오 쉐프와 함께하는 산수유 음식 개발 시연이 펼쳐진다. "알쓸신밥"과 "강레오 쉐프" 프로그램 사전 접수 신청자에게는 기념품과 함께 산수유 무료체험권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축제장에 오면 산수유 까기, 산수유 떡메치기, 엑기스·술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산수유 모바일 스탬프 투어, SNS 이벤트, 룰렛 이벤트, SNS 사진 콘테스트, 산수유 꽃담길 걷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진다.

김순호 군수는 "축제를 하더라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하되, 산수유 열매 축제를 통해 구례산수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축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도곡면 시설원예 공선농가 간담회 개최

구복규 화순군수가 지난 14일 도곡농협 제3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도곡면 시설원예 공선농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구 군수는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시설원예 공선농가의 고충을 청취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 확대, 농가 소득향상과 발전 방안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대책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양액비료 지원 등 농가 경영비 절감과 실질적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원 필요 등이 건의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일선 현장에서 말씀하신 농가의 고충을 깊이 새겨듣고 화순군 농업 발전을 모색하고 돈 버는 농업·농촌을 실현하겠다"며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 농업인 맞춤형 시책으로 농업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엠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터미널 포스코A&C